

네, 이 시간에는

'유대교, 계약과 율법의 종교'라는
이름으로 유대교를 다뤄볼까 합니다.

제가 저번까지는 불교, 도교에 이르는

주로 동양 종교 전통들을
얘기했다고 하면

이 시간부터는 유대교를 필두로
기독교, 이슬람교와 같은

소위 유신론적인 종교 전통을
본격적으로 얘기해 볼까 합니다.

일단 유대교는 유대인의 종교입니다.

그러니까 이름 자체가, **Judaism**
(주다이즘)이라고 하는 말 자체가

유대인이라고 하는 부족 주의적 관점의
종교를 지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리고 유대교는 실제로 그리스도교와

그다음에 저희가 다음에 다루게 될
이슬람교를 함께 아우르는

그러니까 서로 공유하고 있는
한 패밀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사막, 근동 지방이라고 하는
사막에서 유래한 종교이고요.

그다음에 이 세 종교 자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교 자체가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구약의 인물로부터

유래됐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서 보면 아브라함계
종교라고도 따로 불리기도 합니다.

유대교는 마치 기독교 전통에서는
예수가 가장 중요한 인물인 것처럼

유대교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은 '모세'입니다.

모세는 저희가 영화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익히 알고 있지 않습니까?

모세라는 하는 사람은 소위
바빌론 유수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전부 다 나라를 잃고
근동 지방으로 다 뿔뿔이 흩어지는데

그중에 이집트에 잡혀간
유대인들을 탈출시킨

그리고 소위 모세 5경이라고 하는
창세기부터 시작한

다섯 경전을 지은 저자로 이렇게
얘기가 되고 있는 인물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출애굽기라고 하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불렀던
이집트로부터 유대민족을 탈출시켜서

소위 가나안이라고 하는
원래 있었던 땅으로 되돌아가게 하는

여정을 시작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계약과 율법의 종교라고
말씀드린 이유 자체가

그 신과 인간의 약속 소위
Testament(테스타먼트)라고 부르는

계명을 받아온 인물이기도 합니다.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아온
인물이 모세이기도 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방식으로
유대교라고 하는 것은 유대민족의 역사

혹은 유대민족의 정체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를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특히 유대교가
대단히 중요한 특징 중의 하나가

유일신론적인 종교 전통을
강력하게 형성한

일종의 최초의 종교 전통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다시 말해서 당시 이집트라든지
주변의 근동의 여러 나라가

주로 다신론적인 종교 전통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유대교가 최초로 가장 강력한 형태의
유일신교를 체계적으로 정비하고

자신의 전통으로
확립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유일신이라고 말하는

창조주 신과 인간이

계약을 주고받는 것처럼 약속하고
서로 지켜보고 도와주고

어떨 때는 또 갈등하기도 하는

대단히 역동적인 드라마를
표출하고 있는 게

유대교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그런 점에서 보면 모세는
하나님에게서, 신에게서

유대민족의 출애굽의 역사 소명을 받고

그다음에 그 약속한 땅으로 되돌아가는

종교적 지도자이자
정치적 지도자이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보통 세계사 시간에
혹은 국사 시간에 신정일치라는 말을

종교와 정치가 하나로 돼있다는
특히 고대문명, 옛날 문명일수록

신정일치 사회였다고 하는
얘기를 많이 듣는데

유대교가 대표적인
신정일치의 사회이고

모세가 정치적 지도자이자

종교적 지도자였다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동시에 유대교가 유대민족의
종교라고 하는 관점에서 보면

유대민족이 소위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예수가 태어날 당시에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만

로마의 식민지였다가 로마에 반항해서
소위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지는
아주 가혹한 일들을 당하게 되는데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수천 년 동안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나라를 잃은 상태로 살아온 민족으로서
자신들의 아주 고통스러운 역사를

종교적 힘으로 이겨낸
굉장히 보기 드문 사례이기도 합니다.

결국 유대인들은 디아스포라라는
이름으로 유럽 전역에

심지어 소련, 구소련에 이르기까지
유럽 전역에 흩어져서 살다가

2차 대전 때 히틀러에 의해서
엄청난 시련을 겪지 않습니까?

홀로코스트라고 하는 민족적 절멸,
민족을 인종청소 하겠다는

아주 민족적 비극을 맞이하는데

이것을 이겨내고
소위 시오니즘이라고 부르죠.

팔레스타인, 예전의 자기네 나라 땅에

영국의 도움으로 다시
이스라엘이란 나라를 건국하게 됩니다.

이것을 건국하자고 하는 게

시오니즘이라고
저희가 부르는 정치 운동이었는데

이것 역시도 동시에 종교와 정치가
얼마나 다양하게, 밀접하게

연관을 맺을 수 있는지를
보여준 것이죠.

결국 국가를 성립시키는 정치적 행위가

실제로는 이 오랜 시련을
겪게 만들면서도

유대민족의 정체성을 유지시켜 준

유대교의 힘을 또
보여줬다고 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보면
정치와 종교의 역동적인 관계를

소위 유대교만큼
잘 보여준 데가 없고요.

이왕 유대교 얘기가 나왔으니까

다른 종교와 정치의 관계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면

제가 불교와 유교 얘기를 다룰 때
말씀을 이미 드렸지 않습니까?

유교만 하더라도 사회 윤리적
규범 체계로서 인간과 인간의 관계,

인간이 공동체에서
내재되는 관계에 관한

대단히 발전된 사상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점에서 보면 유교가
국가를 건립하고 유지하는

기반을 제공했다고 하는 것이
대단히 자연스러운 거죠.

그 점에서 보면 유교 역시도
정치와 어떤 방식으로든

대단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고요.

여기에 가장 반대편에 가 있는
종교 중의 하나가 불교인 거죠.

특히 조선 시대에 유교가 불교를
많이 비판했던 이유 중의 하나가

개인의 깨달음, 개인의
수행만을 강조하지,

더불어 함께 사는
공동체 운행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표명하지 않는다는
비판을 많이 보여줬다고 하면

그게 또 불교의
장점일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교는 현실정치와 대단히
먼 거리를 보여줬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물론 이 대목에서 저희가
소위 조선 시대 호국불교라든지

고려 시대의 정치권력과
불교가 결탁했던 얘기들도

많이 언급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렇더라도 어쨌든 교리의 체계로서
혹은 근본적인 가르침의 관점에서 보면

유교라든지 혹은 유대교와 달리

불교는 아주 정치와
거리가 있다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다음에 천주교와 개신교,
특히 기독교 전통은

그 중간쯤 간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 기독교가

유대교에서 출발을 했지만

혁신된 모습으로 좀 더
보편적인 종교로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렇지만 이게 세계화된
그러니까 세계 전역으로, 유럽 전역으로

펼쳐져 나가게 된 데는 로마가,
콘스탄티누스 대제가

이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하면서
본격적으로 유럽으로 퍼져나가거든요.

그리고 실제로 교황이라고 하는 존재가
교권을 가진 종교의 지도자였지만

대단히 큰 정치적 권력을
가지고 있어서

웬만한 유럽의 제후들이나
황제들, 혹은 왕들보다도

더 큰 정치적 권한을 행사하다가

나중에 그게 어렵사리
정치와 거리를 두게 됩니다만

하여튼 이런 점에서도
정치와 종교라고 하는 것이

종교를 비교해 보면

대단히 다양한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유대교와 기독교,
그리고 이슬람교의 차이를

저희가 나중에
기독교와 이슬람교를 다루면서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세 종교,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사막 지역의 근동 지역의 종교입니다.

그리고 특히 구약이라고 하는 것들을
공히 다 경전으로

권위 있는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있는데

이 세 종교의 유사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차이점을 가장 전형적으로
드러내 주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예수라는 인물에 대한
이해의 차이입니다.

유대교에서는 일단 구약만 자신의
온전한 경전으로 받아들이고

신약의 권위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예수가 유대 민족을
구원할 메시아라고 하는 것 자체,

혹은 유대민족뿐 아니라 인류 전체를
구원할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유대교에 있어서는 예수는
그저 한 인간일 따름입니다.

반면 그리스도교에서 예수는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라고 부르는

메시아, 구원자로서 그리고 또
구원자에 국한되는 게 아니라

신과 동격인 혹은 신의 아들이지만
신격을 가지고 있는,

그러니까 다른 인간과는
존재론적으로 차별적인 유형의

인간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반면에 이슬람에서 예수는

스물다섯 선지자나
예언자 중의 한 사람입니다.

물론 그중에서 가장 권위 있는 선지자,
예언자는 무함마드겠죠.

그렇지만 예수 역시 무함마드 이전에

무함마드에 이르는 숭한 예언자 중의

한 사람으로서 권위를
제한적으로나마 인정을 하는 거죠.

물론 무함마드가 그렇다고 해서
예수처럼 신격,

신의 위치에까지 올라가느냐,

이 이슬람교에서는 인간이
신이 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무함마드를 당연히
신이 될 수 없지만,

예수도 기독교가 부여하는 신격, 신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면 유대교는 아까 말씀드렸던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소위 유대민족이 정치적으로
뿔뿔이 흩어졌기 때문에

유대교가 흩어진 유대민족들의
정체성과 그다음에 연속성을 부여하는

가장 핵심적인 기반으로
작용했다는 관점에서

디아스포라라고 하는 용어를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유대교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이

시나고그, 랍비, 탈무드와 같은
것들입니다.

일단 시나고그는 '함께 모이다'라고
하는 희랍어에서 온 말인데

소위 유대교 성전을 얘기하는 거죠.

유대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보는 장소를
시나고그라고 하고요.

랍비라고 하는 것은 유대교의 소위
사제계급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목사님들 하고는
종류가 다르고

각기 자신의 생업을 가지고 있지만

유대교의 종교의 경전 공부를
많이 한 일종의 멘토나

스승의 역할들을 하는 사람들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랍비라고 하는 존재를
유대교에서는 빼놓을 수가 없는 거죠.

특히나 이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는
체계종교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샤머니즘은 당연히 경전이 없을 것이고,

도교도 노자의 <도덕경>
<장자>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경전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이라든지 구약과 신약과 같은 식의
권위를 가진 책은 드물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랍비는

율법을 담고 있는 이 경전들을
옳게 이해하고 해석하고

그다음에 유대인들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공유하게 만드는 역할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던 사람들인 거죠.

그다음에 <탈무드>는 저희가
'지혜의 서'로 알고 있습니다만

<탈무드>라고 하는 것은 유대 율법
모세 5경을 포함해서

삶의 구체적인 방식들을 어떤 상황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라고 하는

구체적인 행동지침들을 담고 있는

율법에 대한 주석서를
<탈무드>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또 유대교의 중요한
소위 말해서 성절, 의례라고 하는 것은

유월절이라든지, 속죄일이라든지,
안식일 같은 것이

아주 대표적인 유대교의 축제 혹은
명절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짧은 시간 동안에
유대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유대교는 유대인 공동체라고 하는
민족적 정체성과 분리 불가능한

대단히 부족 주의적 종교이긴 하지만
이후에 기독교라고 하는

전 세계적인 종교를 배태시킨
모태의 역할들을 했고

특히 이슬람에 이르기까지 대단히 많은
서구 종교 사회에 영향을 많이 미친

종교라는 점에서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고요.

특히 유대교는 유대민족이라고 하는
이 작은 수의 민족이

이렇게 숏한 역사적인
시련에도 불구하고

자기 정체성을 유지하고
결국은 물론 논란의 여지는 많습시다만

팔레스타인에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건립시키기까지

대단히 경이로운 일들,
놀라운 일들을 하게 만들었다는 점에서

소위 종교가 가지고 있는
근원적인 힘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유대교와
뿌리를 같이 하지만

우리가 훨씬 더 친숙하게 알고 있는

기독교, 그런데 기독교 안에도
여러 분파가 있습니다만

기독교 중에서도 천주교를 먼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